



The 9th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April 6-13, 2007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Herstory of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Ever since WFFIS was founded in 1997, it has contributed to building a network in the Asian film industry and now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s. WFFIS has also contributed to Filmmaking in Asia by introducing films made about and by women. WFFIS has received a lot of media attention due to the strong support of its audience members. As well as introducing films, the festival has tried to discover and support visionary women filmmakers through its competition section, the "Asian Short Film & Video Competition."

We have invited recent works of the most outstanding women directors such as Patricia Rozema, Barbara Hammer, Marziyeh Meshkini, Catherine Breillat, Chantal Akerman, and Sally Potter. As a special program, the "Director in Focus" section has been introducing various women filmmakers including Agnès Varda, Tahmineh Milani, Lèa Pool, and Vera Chytilová. At the 8th festival held in 2006, we introduced the films of Marleen Gorris in this section. Special programs, including an international forum and seminar, have paid attention to women's video activism and paved the way for women's community-based works.

The eighth annual Festival, which opened with **Sisters in Law** by Kim Longinotto, screened 100 films and videos made about women and by women from more than 20 different countries, attracting more than 33,000 audiences and recording over 90% occupancy rate.

Program

New Currents

Introduces recently produced, outstanding films by women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minorities from women's perspective

Director in Focus

Showcases one female director's films

Asian Short Film & Video Competition

The only competition section in WFFIS to discover and support the emerging Asian women filmmakers

Special Program

1318 Youth Program

A section screening films and videos made by or about girls between 13 and 18 years old

Empire and Feminism

Includes films and videos illuminating women's context and history that globalization and post-colonialism engender

Women Migrants

Features films about women migrants who live and labor within the currents of globalization

Women Meet Queer

Focuses on films and videos made in various women's communities and LGBT productions crossing the national and ethnic boundaries and differences

- Documentary Ockrang Award: Screening the Ockrang awardees (noted for support project for documentary making)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

세계적인 여성영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난 1997년 시작된 서울여성영화제가 어느덧 9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영화제는 세계 여성영화의 흐름을 소개하고, 아시아 여성영화인의 발굴 및 여성영화 제작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영화제는 그 동안 <질투는 나의 힘>의 박찬옥 감독, <고추말리기>의 장희선 감독,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재은 감독 뿐 아니라 <우리들은 정의파다>의 이해란 감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매해 다양한 관객참여 행사와 안정된 영화제 운영, 그리고 해외 여성영화인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객의 열띤 호응으로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적인 여성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객들과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서울여성영화제는 평균 관객점유율 90% 이상을 자랑하는 관객 참여 축제입니다. 서울여성영화제에서 관객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국제포럼을 비롯한 섹션 포럼,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영화제 게스트와의 다양한 만남이 열려있는 영화제입니다. 매회 풍성해지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함께 관객과 즐기며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가 2007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성영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아내는 영화축제로서 영화가 주는 감동과 즐거움, 더불어 그 이상의 에너지를 관객들과 함께 했던 서울여성영화제가 이제 9회 영화제를 통해 모두 7개 부문에 걸친 영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프로그램

새로운 물결

최근 2-3년간 세계 전역에서 제작된 우수한 영화들 중 여성감독 작품을 상영. 소수자들의 중심에서 여성을 외치는 현재의 여성영화의 경향을 알 수 있는 부문

감독특별전

한 명의 여성감독을 선정하여 그녀의 영화세계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부문

아시아 단편경선

한국 및 아시아 여성영화인력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유일한 경쟁 부문

1318 청소년 특별전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 만들거나 이들에 관한 영화와 비디오를 접할 수 있는 신선한 부문

제국과 여성주의 특별전

세계화의 여파와 식민지 지배 이후라는 변화된 맥락에서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는 시사적인 부문

이주 여성 특별전

세계화의 흐름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거듭하는 여성들의 삶과 노동을 다룬 영상을 상영하는 부문

여성, 퀴어를 만나다 특별전

국가와 인종의 경계와 차이를 횡단해서 여성 공동체 및 레즈비언 / 게이 / 바이섹슈얼 / 트랜스젠더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영화와 비디오를 만날 수 있는 부문

* 특별상영 다큐멘터리 옥랑상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상인 옥랑상 수상작품을 상영

Asian Short Film & Video Competition for the 9th WFFIS

Works eligible for competition include short length (less than 60 minutes) of films & videos regardless of genre(fiction, documentary, animation, etc.) directed by one or more Asian women and completed after January 2006.

Submission Date: January 8-12, 2007

Awards

Grand Prize Cash award of 5,000,000 won and a trophy (approx. USD 5,000)

First Prize Cash award of 3,000,000 won and a trophy (approx. USD 3,000)

People's Choice A trophy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festival submission form and regulations at;

www.wffis.or.kr E-mail. program@wffis.or.kr

Please note: We also accept films and videos year-round for other non-competitive sections.

WFFIS 2006 아시아단편경선 부문 공모

아시아 여성영화인들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 서울여성영화제 아시아단편경선 부문에서 아시아의 젊은 여성감독들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원작품의 수적 증가나 소재와 형식의 다양함 등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단편경선에 여성감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출품대상

2006년 1월 이후 완성된 아시아 국적을 가진 여성감독 작품

극,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 불문의 단편(60분 이내)

16mm, 35mm, Digi-beta, Analog-beta, 6mm-digital 구분 없이 출품 가능

접수기간

2007년 1월 8일(월) -12일(금)

시상내역

최우수상 1편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편 각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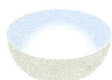
관객상 1편 트로피

접수방법

출품신청서는 www.wffi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영화제 사무국 방문을 통한 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 E-mail program@wffis.or.kr



옥랑다큐멘터리

WFFIS2006 다큐멘터리 옥랑상

2002년 제 4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시작된 다큐멘터리 옥랑상은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는 상입니다. 옥랑상은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드러내어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며 이를 새로운 영화언어로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수상 제도입니다. 지난 서울여성영화제는 1기 옥랑상 수상작인 〈봄이 오면〉, 〈왓지 작은 찻잔과 밥그릇〉을 비롯해서 제 3회에는 〈엄마를 찾아서〉를 선정하고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 8회에는 4기 옥랑상 수상작인 〈쇼킹 패밀리〉와 〈우리들은 정의파다〉가 상영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옥랑상은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거나 제작진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매년 상반기 1회, 1작품 이상, 최대 천만원 이내 순수제작비 위주로 지원됩니다. 6기 다큐멘터리 옥랑상 공모에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접수기간

2006년 11월 20일(월)~ 11월 30일(목)

E-mail plan@wffis.or.kr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for gener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5F. Seojeon B/D, #1431-9, Seocho1-dong,
Seocho-gu, Seoul 137-865 Korea

TEL. +82 2 583 3598

FAX. +82 2 525 3920

E-mail. wffis@wffis.or.kr/program@wffis.or.kr

www.wffis.or.kr